

MIRAL

MIRAL Welfare Foundation

밀알

2016. 1+2

Vol. 51





Cover story

186센티미터의 큰 키에 상남자의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로 아주 작고 디테일한 작업을 좋아하는 섬세한 청년 김정우 작가는 밑알복지재단과 KB국민카드가 함께하는 발달장애청소년 미술지원사업 '봄(seeing&spring)'을 통해 미술교육을 받고 있다.

그림 김정우 [안경사람]
Colored-pencil on paper, 65×48cm, 2015



밑알칼럼 밑알정신을 소개합니다	04
기획특집 천재와 장애 사이, 서번트 신드롬 - 김정우 편	06
현장이야기 1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goodwill',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곳, 굿윌스토어 밑알구리점 탐방기	12
먼나라 이웃나라 킬링필드 그리고 청년들의 나라, 캄보디아	16
현장이야기 2 배우 정수영이 만난 캄보디아 아이들	21
MIE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Magazine In Education	25
특별한 지도 그리기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혜화역 주변	26
희망인 김영민씨가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방법	32
함께인 행복한 동행 그 이상의 아름다움, NH투자증권	36
함께하는 마음 "자유를 마음껏 안아보고 싶어요."	40
나눔 후 사랑과 응원에 반드시 일어날게요! - 43호 석규네 사연	43
밑알뉴스 법인사무처, 산하시설 및 국내·외 지부 주요소식	44
회원안내 이런 기부 어때요? 내 아이를 위한 아름답고 예쁜 나눔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올해보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해주세요!	48 49
캠페인 잃어버린 밤 시간을 비춰주는 태양광랜턴 - 솔라미	50
결산보고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51

밑알복지재단

밑알복지재단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에 설립되어 국내 및 해외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48개 산하시설과 7개 지부를 통해 장애인, 아동, 노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21개국에서 특수학교 운영, 빈곤아동 지원, 이동진료 등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섬기는 사람들

[이사장] 홍정길 [상임대표] 정형석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송창국, 정형석 [명예이사] 노성현, 박완철, 정형욱, 정현만, 조병성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이종면, 정태중, 정형석, 최병우 [곳월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명희, 박정열, 손만석, 이만철, 정형석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위원 김귀자, 류제룡, 박상호 이정우, 정형석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명희, 정형석, 한장국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박상범, 서경석, 정현만, 정형석 [전문위원] 김두현, 김마옥,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자문위원] 김준수, 배윤규, 이성현, 조윤경, 홍정혜



밀알[MIRAL]정신 IV

‘Advocacy’ 옹호

Modesty 겸손, Integrity 정직, Respect 존중
Advocacy 옹호, Love 사랑

밀알정신은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겸손하게 오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밀알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 즉 밀알정신은 밀알의 영문 표기인 MIRAL의 첫 글자를 중심으로 Modesty(겸손), Integrity(정직), Respect(존중), Advocacy(옹호), Love(사랑) 등 다섯 가지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네 번째 정신인 Advocacy(옹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어단어 Advocacy는 변호, 지지, 옹호라는 뜻입니다. 미국사회복지사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는 옹호란 “사회정의를 보장 혹은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람 혹은 그 이상의 개인, 집단, 지역사회를 위해서 대표하거나, 방어하거나, 개입하거나 지원하는 일련의 행동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장경제를 추구하기 때문에 약육강식이라는 힘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경쟁에서 이긴 강자는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지만 경쟁에서 밀린 약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본주의의 문제로 표출된 것이 사회양극화 현상입니다. 강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지만 약자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때로 국가의 권력은 사회정의를 위하여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임무이지만 강자의 눈치를 살피며 약자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근자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등 사회적인 약자들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다수는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도 모르고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고통 중에 있는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아 연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권리를 지지하고 변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인 행동도 실행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사회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계몽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하지만 지역사회 주민들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편견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외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여 년 전, 밀알학교를 건립할 때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건축허가 관청인 구청에 압력을 행사하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반대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은 민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는 제출과 동시에 번번이 반려되었습니다. 어렵사리 찾아가서 만난 주민 대표는 지역사회에 특수학교를 건축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학교건축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건축법이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학교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교육감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밀알은 서울시 교육청 건축허가 1호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단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전투경찰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대치상태에 있는 양쪽의 접촉을 차단하였습니다. 도무지 다른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원에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주민들도 질세라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속히 진행된 재판에서 재판부는 밀알의 손을 들어 주어 공사방해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의 결과와 함께 많은 언론과 의식이 있는 시민들이 밀알을 지지해 주고 응원하여 주어 모든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옹호, 변호 덕분에 자폐아들의 교육권이 확보되었습니다. 1997년에 밀알학교는 무사히 건축을 마치고 개교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밀알학교를 방문하여 자신들이 잘 몰라서 반대하였다고 소회를 밝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약자들의 천부적인 권리인 생존권을 확보하는데 옹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스럽게 깨닫는 사건이었습니다.

밀알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약자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대언자(변호사)가 되어 주셨던 것처럼 변함 없는 마음과 자세로 시민사회와 더불어 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인권신장을 위한 옹호 활동을 중요히 여기며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작가 김해원

그림 속에 작은 그림 그리는 천재작가



“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

밀알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서번트 신드롬을 지닌 장애 청소년을 발굴해 전문가로 키우는 '봄(Seeing & Spring)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재와 장애 사이, 서번트 신드롬〉에서는 봄 프로젝트를 통해 선발된 서번트 신드롬 작가들의 삶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우가 그린 그림을 보면 그냥 좋아요. 행복해요. 저는 그림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우가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지만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정우가 행복했구나, 좋았겠구나, 힘들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 벅차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정우는 스무살. 장애인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고등부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자폐성장에 2급의 청년이다. 186센티미터의 큰 키에 상남자의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로 빨강색과 분홍색을 좋아하며 아주 작고 디테일한 작업을 좋아하는 섬세한 청년이다.

“정우가 그린 사람들은 모두 빨간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두텁고 빨간 입술에 주름이 가득 묘사되어 있지요. 핑크색도 좋아해서 그림 마다 많이 사용하고요. 얼마 전엔 핑크색 바지를 사달라고 하는데 핑크색 바지를 입기엔 정우가 너무 커버려서 안된다고 했어요. 186센티 키에 핑크색 바지는 좀 아니잖아요. 하하하”

정우가 그린 사람은 패션잡지를 연상하게 할 만큼 의상과 신발의 모양이 다양하다. <거울>이라는 작품은 소파와 테이블, 의자, 벽난로, 러그 등의 묘사가 너무나 곱고 아기자기해서 남학생의 그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다. <만리장성>과 <뉴욕>은 자신이 좋아하는 붉은 색을 충분히 사용한 즐거운 작업이었다.

“가족여행으로 만리장성을 다녀왔는데 인상 깊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큰 크기의 캔버스(162.2cm×130.3cm)에 만리장성 벽돌을 손톱보다 작은 크기로 하나하나 다 그려 넣었어요. 같은 크기의 뉴욕이라는 그림 역시 그렇게 작은 그림들로 큰 캔버스를 채운 거예요. 워낙 작은 것들을 많이 그려 넣다보니 두 작품을 완성하는데 6개월이 걸렸지요.”

정우의 그림을 본 독립큐레이터 강혜영씨는 정우는 작품을 컨트롤하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김정우 작가의 작품은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보다는 진화라는 표현이 적당하며, 최근 본 작가의 작품은 가는 선을 이용한 드로잉과 다양한 색상이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점은 이러한 진화가 작가가 꾸준히 열중하고 있는 특징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지니고 있어야 하는 전형성을 지키고 있는 동시에 진화를 거듭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은 모든 예술가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김정우 작가가 모범적인 길을 걷고 있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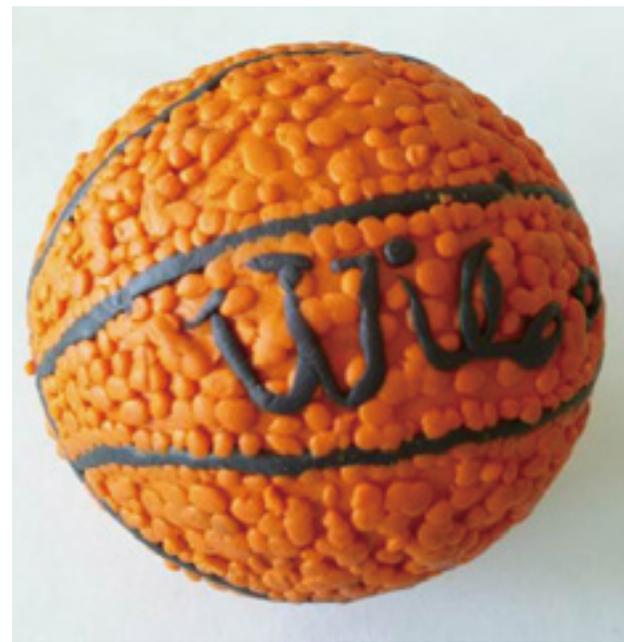
정우의 그림은 보고 또 보는 재미가 있는 그림이다. 한때 유행했던 그림책 <윌리를 찾아라>처럼 찾아도 찾아도 끝이 없는 작은 그림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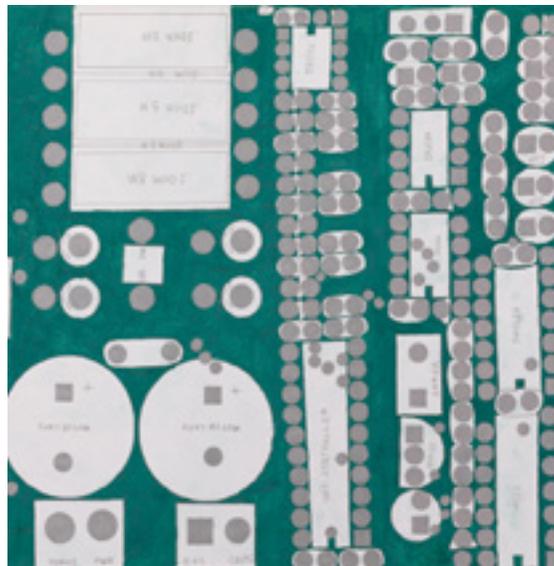
“어릴 적엔 만들기를 주로 했어요. 고무찰흙을 이용해서 아주 작게 맥도날드 햄버거세트를 똑같이 만들기도 하구요. 농구공을 골프공만하게 축소해서 돌기까지 만들고 딸기도 깨알보다 작은 씨까지 다 표현해서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신용카드와 통장도 크기만 작지 복사한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저를 줬는데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런 것만 했어요. 그리고 자르고 만들고 붙이고... 저는 자꾸 아이를 방에서 끌어내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말썹부리지 않고 혼자 노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어차피 정우도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니까요.”

정우는 조금 늦되는 편이지만 큰 문제가 있는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첫 아이고 엄마 혼자 키우다보니 비교 대상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는

01
02
03

01. 만리장성, Oil & marker on canvas, 162.2×130.3cm, 2014 ©김정우 / 시스플래닛
02. 농구공, clay, diameter 6cm, 2010 ©김정우 / 시스플래닛
03. 동그라미, Marker on panel, diameter 120cm, 2013 ©김정우 / 시스플래닛





그날까지 아이의 장애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다만 엄마는 아이가 지극히 정상이며 조금 늦될 뿐이니 걱정 말고 기다리라는 의사의 확증을 받고 싶었다. 그러나 결과는 청천벽력이었다.

“둘째 아이 출산을 두 달 남짓 앞두고 있었어요. 가볍게 생각하고 검사나 해보자고 갔는데 ‘장애가 있을 것 같다’, ‘특수학교에 보내야 할 것 같다’, ‘특수학교에서는 우수한 아이가 될 것이다’ 너무나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낫게 하고 말겠어. 잘 키워서 선생님의 진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정신없이 병원을 나와 정우와 함께 정류장에서 있는데 택시가 제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좁은 택시 안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삭인 배에 정우를 안고 몇 차례 전철을 갈아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배고플 정우를 위해 서둘러 이유식을 만들어 먹이며 말했어요. 정우야 걱정마. 엄마가 꼭 낫게 해줄게. 아무 일도 아니야. 엄마가 널 꼭 낫게 해줄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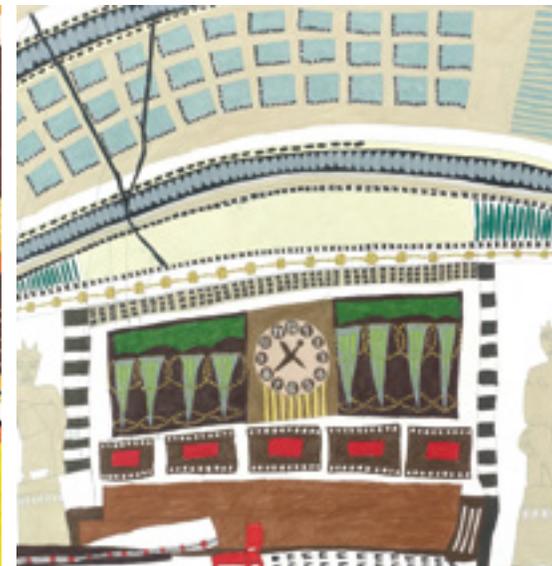
그렇게 정우와 엄마의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었다. 엄마는 동생을 낳고 백일 만에 정우를 데리고 치료실을 찾았다.

뭔가 빨리 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마음. 특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라도 더 해주면 좋아질 것 같은 마음에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정우 뒷바라지에만 매달린 것이다.

“교육비로 집 한 채 값이 들어갔다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이에요. 그때는 교육비를 많이 들이면 정우가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우에게는 오히려 치료실보다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니고 방과 후 교실에 다니면서 친구들과 뒹굴고 놀고 선생님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정우는 통합어린이집인 목련어린이집을 거쳐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진학했다.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니터 선생님(지금의 활동보조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었고 무리 없는 학교 생활도 가능했다. 더구나 그림에 재주가 있는 아이다보니 친구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기까지 했다.

“늘 고마워요. 정우가 잘 자라주는 것도 고맙고 그림에 재주가 있고



좋아해서 저렇게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하는 것도 고맙고요. 또 정우를 오늘까지 키우는데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 복지제도,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 모두가 너무 고마워요. 저는 정우의 장애를 미리 말씀드려요. 그래야 정우의 태도에 대한 오해가 없구요. 오히려 장애를 이해하고 도와주시려고 하지요. 정우를 키우며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해요.”

장애아를 키우는 과정은 내려놓음의 연속이다. 기대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남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비교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것을 감사하게 되기까지 엄마는 또 얼마나 많은 날들을 기도와 눈물로 보냈을까. 엄마는 기대와 욕심은 내려놓았지만 희망은 버리지 않았다. 정우가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도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으며 주변에서 사랑과 관심을 받고 또 주변에 도움과 기쁨을 주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게 되길 바라는 희망이다.

“정우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모르겠지만 정우가 그린 그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알아요. 정우가

그림 그릴 때 느낀 행복과 기쁨들을 정우 그림을 보는 분들도 똑같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참 놀라운 것은 그저 집에서 그렸으면 낙서나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을 그림들이 선생님들의 지도와 기획을 만나 작품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시회를 할 때마다 정우도 저도 깜짝 놀라요. 전시실 벽에 걸린 그림은 또 다른 감동을 주거든요. 그때 정우의 표정은 뭐랄까요. 신기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하하하. 정우가 오랫동안 그런 행복을 맛보며 살길 바래요. 온실 한구석에서 시들어가는 화초처럼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날까지 자기가 행복해 하는 그림을 그리며 산다면 엄마인 저는 바랄 것이 없겠어요. 아이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가도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04	05	06	07
----	----	----	----

04. 겨울, Acrylic & colored-pencil on paper, 96.5x65cm, 2015 ©김정우 / 시스플래닛
 05. 김정우 전기, Colored-pencil on paper, 77x54cm, 2014 ©김정우
 06. 인경사람, Colored-pencil on paper, 65x48cm, 2015 ©김정우
 07. 시계, colored-pencil on paper, 77x56cm, 2014 ©김정우 / 시스플래닛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goodwill',
호의를 베풀 수 있는 곳,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탐방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느끼고 바라보는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장애인의 고용과 복지에 대한 요구는 그들만의 리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우리는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 힘쓰고 있는 개점 1주년을 앞둔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을 찾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 사진 홍보팀 권태윤



01. 2015년 2월 개관식 02. 장애·비장애 직원이 함께 일하는 모습 03. 바쁜 가운데도 포즈를 취해주는 장애인 직원들

착한 기업, 굿윌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인 굿윌(Goodwill)은 1902년 에드가 헬름즈(Edgar J. Helms) 목사에 의해 미국에서 설립되어 192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시작했다. 굿윌은 기증받은 음식과 의류 등을 실업자에게 제공하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 후 점차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 고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굿윌은 2014년 기준으로 6조 3,715억원의 매출을 달성,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매장으로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주방용품, 문구류 및 소형 가전, 가구류 등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굿윌스토어는 전 세계적으로 3,000개가 넘는 매장이 있으며, 밀알복지재단은 2011년 밀알송파점을 시작으로 밀알도봉점, 밀알전주점 및 밀알구리점까지 총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116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2014년 12월 말 기준) 그 중 96%가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이고 82%가 국가지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직원의 급여 및 중증장애인과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직업재활과 지원고용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다.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의 무한도전

사실 대부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단순 임가공 위주의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다보니 시장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수익구조는 열악할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장애인 고용이 확대 재생산

되지 못하는 반복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굿윌스토어는 장애인 고용업체 중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있을 정도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 굿윌스토어의 이런 시도는 장애인 고용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해묵은 과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모범적 답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2015년 2월 13일(금),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지상 2층 총 1,563㎡ 규모로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이 문을 열었다. 그들은 개장 전부터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진행하였다.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엔 장애인 직원 6명(중증 장애인 5명 포함)을 포함해 총 14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들을 돕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장애인 직원들은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요.”

변화의 바람

오픈 초기에는 장애인 직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기도 했었고, 비장애인 직원들은 장애인 직원들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하지만 직무 및 생활 교육 시스템과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고 업무에 배치하니 업무능력이 몰라 보게 좋아졌다고...

“어느 순간 저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장애인 직원들은 한 달에 한 명씩 반장 역할을 맡는데, 아침 모임이 끝나면 반장이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요. 어느 순간부터 전혀 막힘이 없이 진행되는 걸 본 순간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변화는 그 뿐만이 아니다. 장애인 직원들은 굿윌스토어가 아니었다면 하릴없이 집에만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명절날이 되면 직장에 다닌다고 자랑도 할 수 있을 만큼 행복해 한다. 장애인 직원 가족들은 가슴 한편엔 내 아이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다녀 죄송한 마음도 있다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굿윌스토어가 확산되길 바라고 있었다.

공존, 따뜻한 미래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은 하루 평균 150명에서 200명의 이용자들이 찾고 있으며, 주말엔 300명 이상이 찾는다고 한다. 온가족이 함께 봉사하러 오는

가족들도 많다. 평상시 집에서는 잘 하지 않던 정리정돈 등의 생활 습관 등도 배우게 되다며 부모님들이 좋아하신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100원, 200원 하는 적은 금액의 물품을 사가는 어린이 고객들에게도 영수증을 발급해주어 올바른 경제활동을 체험하게 되고, 기부문화 체험을 통해 나눔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셨어요. 그분은 아파트 주민들이 이사 갈 때 버려지는 물건들 중 쓸 만하고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이 있으면 이사가시는분들에게 이렇게 돈을 내고 버리는 것보단 좋은 곳에 기증하는 것이 어떠시냐며 의견을 묻고는 저희들에게 항상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번거우르실텐데도 항상 도움을 주셨던 그분이 참 기억에 남아요.”

사람, 함께 사는 세상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은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다. 바로 완전 자립형 기업이라는 점이다. 보편적으로 운영을 위해 지자체 및 단체의 후원을 받는데 밀알구리점은 2015년 12월을 기점으로 오직 자체적인 수익을 통해 운영하는 자립형 기업으로 전환되었다. 월 일정 매출을 달성해서 직원의 급여뿐만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하고 나아가 밀알구리점의 자매장을 확산시켜 나갈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희의 목적은 이익이 아니라 배분에 있어요. 자체적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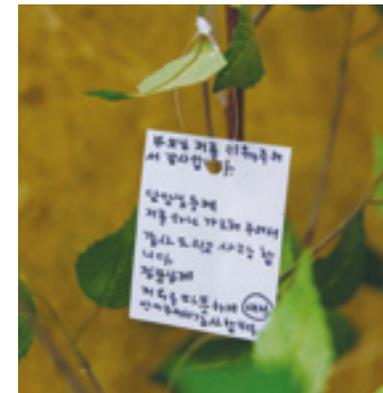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운영이 됩니다. 앞으로의 큰 목적은 자매장을 점차 늘려나가서 장애인뿐 아니라 새터민 및 이주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매장을 통해 지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굿윌스토어를 방문하면 장애인 직원들의 흥겨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일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행복하다며 수줍게 웃는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사회통합의 모습이 아닐까.

‘자선이 아닌 기회를’이란 슬로건은 단순히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행복할 기회와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함께 사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자립 경영을 꿈꾸며 지역 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을 꿈꾸는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의 무한도전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M**

04	
05	06
07	

04. 매장에서 물품정리 중 포즈를 취해준 장애인 직원
05. 장애인 직원이 쓴 감사카드
06. 성공적인 자립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이룬 밀알구리점 한상욱 점장과 직원들
07. 많이 샀는데 이렇게 싸다니.. 즐거운 계산대 앞



기증방법

1. 기증센터 직접 방문
2. 수거요청 - 기증품 수량이 3박스 이상 (사과박스 기준)인 경우에 요청을 하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기증품을 수거해 간다.
3. 택배 기증 - 2박스 이하일 경우에는 택배를 이용하여 기증하면 된다.

기증문의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경기도 구리시 정자호수길 62 (교문동)
Tel : 031-524-9891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서울 도봉구 마들로 664-17 (도봉동)
Tel : 02-6910-9191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서울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Tel :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18 (경원동)
Tel : 063-282-9192

킬링필드 그리고 청년들의 나라, 캄보디아

글, 사진 홍보림 권태윤



2015년 연중기획으로 아프리카를 소개하던 “이슈 인 아프리카”에 이어
밀알복지재단이 진출해 있는 사업국 중 한 국가를 선정하여 소개하는
“만나라 이웃나라” 편을 진행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킬링필드의 아픔을
극복하고 있는 나라, 캄보디아를 소개합니다.

찬란한 역사의 상징 앙코르와트. 연평균 400만명이 다녀가는 앙코르와트 사원의 화려함과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두움이 공존하는 나라,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한국인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매혹적인 관광지로 유명하다. 캄보디아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면 웅장한 앙코르와트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든 동양 최대의 호수인 톤레삽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슬픔의 역사를 뛰어넘어 희망을 만들어가는 캄보디아에 대해 알아보자.

앙코르와트 사원

우리에게는 신들의 정원, 앙코르와트 [Angkor Wat] 사원으로 잘 알려진 캄보디아, 그들의 국기 안에도 그 형상이 들어갈 만큼 캄보디아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적지이다. 앙코르와트는 원래 크메르 제국의 사원이었으며, 아무나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러다가 1992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개방이 되어 오늘날 출입이 가능해졌다. 앙코르 유적지는 9~15세기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부를 지배한 크메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그 중에서도 3만여 명의 장인들이 30여년에 걸쳐 완성시켰다는 앙코르와트는 앙코르의 건축과 예술이 집대성된 걸작으로 꼽힌다. 이 건축물은 12세기에 앙코르 왕조의 수리아바르만 2세 때 조성된 것이다.

앙코르와트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주위를 넓은 해자⁽¹⁾가 감싸고 있다. 이것은 신들의 세계를 나타내는 앙코르 유적의 특징으로, 외곽을 둘러싼 해자는 바다를, 성벽은 히말라야 산맥⁽²⁾을, 그리고 높이 솟은 사원은 수미산⁽³⁾을 상징한다고 한다.

- (1) 성곽이나 고분의 둘레를 감싼 도랑.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밖을 둘러 파서 못으로 만든 곳.
- (2) 인도 대륙 북쪽에서 중앙아시아 고원 남쪽을 동서로 길게 연결하는 만년설의 산맥.
- (3) 고대 인도의 우주관에서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상상의 산.

스스로가 선택한 프랑스의 통치 (1864~1940)

캄보디아는 1864년 태국과 베트남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진해서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편입하였다. 그러나 1884년 노로돔(Norodom) 국왕은 프랑스의 강압으로 명목상의 왕위만 유지하고 통치권을 프랑스에 넘겨주는 협정에 서명하였다.

1941년, 프랑스는 계속된 통치 속에 당시 19세의 노로돔 시하누크(Norodom Sihanouk)를 왕으로 즉위시켰다. 하지만 시하누크는 1945년 3월 12일 일본의 도움을 받아



01. 앙코르와트 사원 02. 03. 톤레삽 호수 [Tonle Sap Lake]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륙 어장 중 하나이자 동양 최대 호수인 톤레삽. 캄보디아 중앙에 위치한 이 거대한 호수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삶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다. 물길 위에는 각종 물건을 파는 가게에서부터 주유소, 배 수리하는 곳, 식료품을 파는 배까지 없는 것이 없는 수상 마을이 들어서 있다.



04. 킬링필드 학살의 현장 05. 손 흔들어 주는 가족들 06. 환하게 웃는 캄보디아 소녀

캄보디아 독립을 선언하였다.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전하면서 프랑스는 캄보디아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였다. 그 후 1953년 11월에 프랑스가 시하누크에게 군사권, 사법권, 외교권을 허용하였고, 캄보디아는 사실상의 독립을 하게 되었다.

킬링필드

1975년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부농의 아들로 태어나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한 폴 포트(크메르루즈 정권 - 붉은 크메르)는 친미 세력인 론 놀 정권을 몰아냈다. 그로부터 4년간 캄보디아에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당시 폴 포트가 정권을 잡자 론 놀 정권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은 환영하였다. 그러나 폴 포트는 노동자와 농민의 유토피아를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화폐와 사유 재산, 종교 등을 폐지해 버렸다.

부르주아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고 있었던 그는 사회 지도자, 지식인, 공무원 등 노동을 하지 않아 손이 부드러운 사람, 책을 읽느라 안경을 끼게 된 사람들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여성과 노인, 갓 태어난 아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여만 명에게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로 인해 캄보디아는 뼈아픈 시간을

끝낸 이후에도 자신들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할 지식인들이 부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후 크메르루즈 정권은 1979년 베트남의 지원을 받은 캄보디아 공산동맹군에 의해 전복되었다.

학살된 지식인들 가운데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1979년 훈센 총리가 군대를 이끌고 프놈펜에 입성했을 때 나라 안의 의사 수가 겨우 13명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의 만행은 뉴욕타임스 캄보디아 특파원 시드니 쉐버그의 '디스프란의 생과 사'라는 한 캄보디아인의 이야기를 다룬 글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글은 1980년 뉴욕타임스에 실렸고 쉐버그는 풀리처상을 수상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살된 양민이 매장된 곳을 뜻하는 <킬링필드>라는 제목의 영화가 제작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킬링필드 [Killing Fields]로 불리는 대학살은 20세기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인류역사에 남게 되었다.

숨겨진 살인자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캄보디아에서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 '숨겨진 살인자'(Hidden Killer)로 불리는 지뢰는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무기라고 일컬어진다. 캄보디아 내전 당시, 크메르루즈군과 미국을 등에 업

은 론 놀군 역시 지뢰를 사용함으로써 불행을 자초했다. 벌써 4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능이 퇴화되지 않은 채 땅 속 깊이 묻혀 있다.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한 폭발 사고가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들의 나라

이러한 아픔의 역사로 인해 현재 캄보디아는 30세 이하가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기이한 구조가 되었다. 경제기반과 고용정책이 불안정한 캄보디아에서 청년층이 인구의 2/3를 차지하다보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발생하고 있다.

크메르루즈 정권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교육 인프라는 열악한 상황이다. 1979년 크메르루즈 정권 붕괴 이후 다시 재건되고 있으나, 교육시설은 물론 교사와 교육매체 등 모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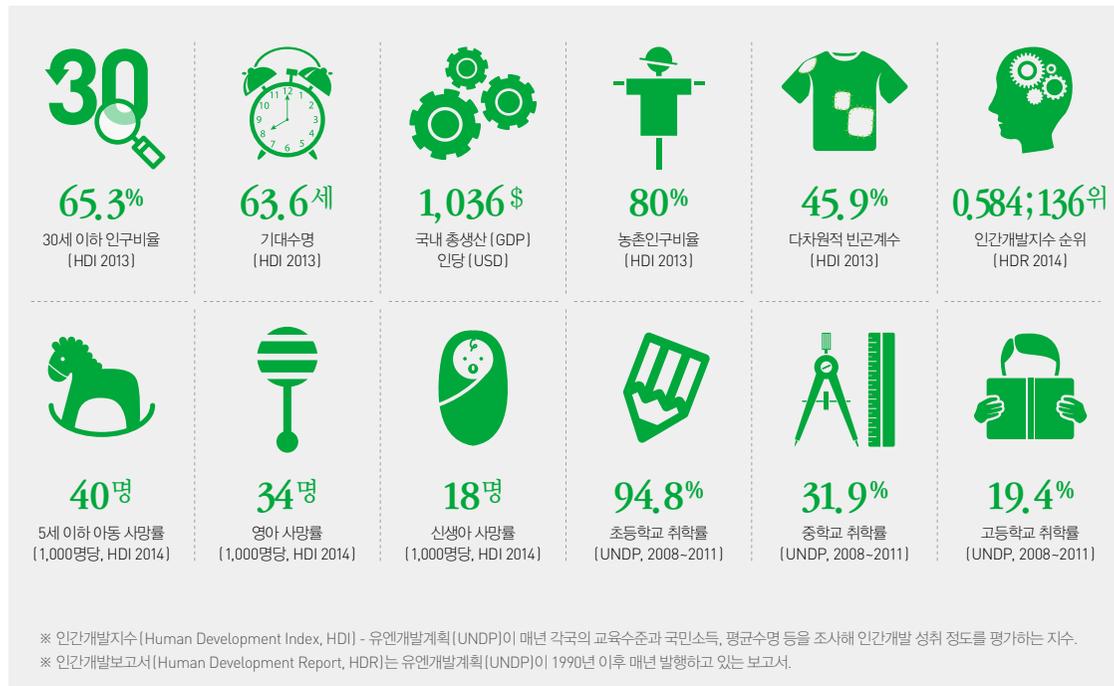
것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도 프놈펜의 경우는 그나마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매우 열악한 편이다.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중·고등교육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80%대의 문맹률이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수도 프놈펜의 경우 5~6%대이며^(자료 제공: 프놈펜 왕립대학교) 지방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는 보이고 있으나, 15~20%대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초등교육 이후 중·고등학교로의 진학률은 여전히 현저하게 낮다.^(20페이지 도표 참조)

캄보디아를 포함한 메콩(Mekong)강에 인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관광산업과 무역업의 성장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국가 간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경지역에서는 비약적 경제성장을 이룬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교육이 아닌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거나



톤레삽 호수 [Tontle Sap Lake]



참고자료 < kotra 국가정보 2013 >, < 캄보디아 개황, 2011. 10., 외교부 >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하고 있는 것이다.

미성년인 10대들을 값싼 임금으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국내 뿐 아니라 태국 등지에서도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로 코코넛 오일 농장, 파파야 농장, 고기잡이 배, 가공식품 제조공장 등에서 일하는데, 작업환경이 위험하고 휴식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등 노동의 강도가 매우 가혹한 편이다.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합법적 이주에 필요한 여권이나 비자, 교통비 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브로커의 힘을 빌려 불법이주를 감행하고 있다. 브로커들은 이를 빌미로 임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탈출을 막기 위해 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도 많다.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불법이주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시작하는 캄보디아

지금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6.25 전쟁 때만 해도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 쌀을 지원해주던 나라였다.

캄보디아는 이제 새롭게 태어나려 하고 있다. 식민지배에 이어서 30년 가까운 근대사의 전쟁과 크메르루즈의 집권으로 인해 세계 현대사의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많은 문제 속에서도 이제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다. 전체 인구의 2/3 이상이 30세 이하인 인구 구성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캄보디아는 새로운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찬란한 문화유산이 보여주는 웅장함과, 순박한 사람들의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메콩강이 흐르는 땅 캄보디아가 킬링필드의 슬픔을 넘어 밝은 미래를 맞이하기를 희망해본다. M

배우 정수영이 만난 캄보디아 아이들

‘신들의 도시’라 불리는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매년 4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세계적인 관광국가입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약 7%의 고속성장을 기록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1,146로 세계 154위인 최빈국 중 하나이며 특히 빈부격차와 여성,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소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글, 사진 미디어나눔팀 이수호



씨유아이네 가족과 함께한 배우 정수영

수도인 프놈펜 시내를 경적을 울리며 바빠 움직이는 차와 오토바이 그리고 그 사이를 위협하게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현대식 건물 안쪽으로는 곳곳에 판자촌과 같은 빈민촌들이 숨어 있었고, 강가에는 나무를 듦성듬성 엮어서 만든 열악한 수상가옥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어딜가나 학교에 가지 않고 삼삼오오 모여 동네를 떠돌아 다니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창 공부하고 배워갈 나이에 관광객에게 구걸을 하거나 쓰레기 더미를 이리저리 뒤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배우 정수영씨는 이런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캄보디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영씨 역시 5살 난 아이의 엄마로 캄보디아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모른체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찾아간 캄보디아에서 첫 번째로 만난 아이는 수도 프놈펜의 외곽 도시 언동마을에 살고 있는 14살 쓰라일린입니다.

재래시장에서 할머니와 함께 생선국수를 파는 14세 소녀 쓰라일린

쓰라일린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오빠와 함께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알콜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마저 아버지의 빚 독촉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을 두고 도망가 버리기 전까지는 가난해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머니 혼자 국수장사로 생계를 책임지고 계시고 쓰라일린은 이런 할머니를 도와 매일 새벽 3~4시에 일어나 국수재료를 준비하고 함께 시장에 나가 국수를 팔고 있습니다.

학업을 포기하고 유흥업소에서 청소일을 하게 된 첫째 오빠 매까라(15세)와 장애가 있는 동생 따라(7세, 다운증후군)를 포함한 5형제 모두 아직은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허락된 안식처는 6식구 다닥다닥 붙여야 겨우 새우잠을 잘 수 있는 1평남짓의 허름한 판자집이 전부였습니다.



01. 오빠와 함께 학교를 다닐 때 찍은 사진 속 쓰라일린 02. 할머니를 돕는 쓰라일린 03. 학교를 다니지 못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씨유마이

킬링필드 내전으로 남편을 잃은 쓰라일린의 할머니는 원래 프놈펜 시내의 썸뽕잡이라는 빈민촌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썸뽕잡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관광지인 캄보디아 왕궁 근처의 빈민촌으로 성매매, 노상강도 등으로 악명높은 우범지역이었고 관광객들에게도 쉽게 눈에 띄는 곳이었기에 정부에게도 눈엣가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2006년 무장경찰을 동원해서 1,500가구를 강제로 철거하게 되었고, 당시 쓰라일린의 할머니는 짐을 제대로 챙길 틈도 없이 쫓겨나 지금의 언동마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터로 나가게 된 것, 그걸 허락해 준 걸 가장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정수영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의 딸이 되어 할머니를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정수영씨는 무거운 지게를 지느라 몽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의 국수를 대신 팔아드리기도 하고,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하고, 또 쓰라일린과 함께 그릇을 씻고 물을 떠오는 일을 하면서 정수영

씨는 장사가 마칠 때 까지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선생님이 되고 싶은 13살 소녀 씨유마이

정수영씨가 두 번째 만난 아이는 선생님이 꿈인 13살 소녀 씨유마이입니다. 초등학교도 가지 못해서 글씨도 읽을 수 없는 어머니를 보면서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우게 된 기특한 아이였습니다. 놀이라운 둘째 동생 메이홍(11살)과 막내 대빛(3살)이랑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재활용 비닐 찢는 통에서 물장구치며 노래 부르는 것 말고는 딱히 없는데도 아이는 동생들과 있으면 항상 즐거운 듯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씨유마이는 어머니의 일을 돕는 것도 능숙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워온 비닐을 찢으면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한쪽에 찢은



04



05

04. 엄마를 도와 비닐을 줌고 있는 씨유마이 05. 꼬마아이와 인사하는 배우 정수영

비닐을 넣어 말려놓고 또 다 걷은 후에는 어머니와 함께 자기 몸보다 더 큰 비닐자루를 지고 가서 팔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고 어머니와 함께 해가 지도록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우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는 의젓한 모습을 바라보면 더 슬픔이 밀려옵니다.

씨유마이네 가족이 이렇게 밤 늦게까지 쓰레기를 주워 팔아서 버는 돈은 하루 약 \$3~4정도입니다. 비가 오면 벽과 천장에서 물이 새고 쓰레기 더미 곳곳에 숨어있던 벌레, 쥐, 뱀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위험한 환경이지만 그나마도 고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기에 씨유마이의 어머니는 이 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어 가는 것이 없어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감사의 기도가 나온다면 가슴을 쓸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변변치 않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정수영씨는 씨유마이 가족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어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근처의 시장을 가서 후라이팬에 볶고 따뜻한 쌀밥을 지어 씨유마이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고기라면 항상 국물 요리만 먹어봤기 때문에 국물이 없는 고기볶음에 세 살배기 막내 대빛은 엄마에게 투정을 부렸지만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길거리가 아닌 집에서 먹게 된 아이들은 활짝웃으며

저녁식사를 마쳤습니다.

“짧은 시간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작은 위로가 쓰라일린의 할머니나 씨유마이의 엄마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단지 물질적인 결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결핍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돕는 도움이 단지 동정에 의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을 누군가가 사랑하고 있다는 정신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렇기에 큰 금액이 아니라 조그마한 금액도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 배우 정수영

4박 5일간의 짧은 일정동안 아이들을 만난 정수영씨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캄보디아의 부모님들과 어린 나이에도 가족들을 돕고 가족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주려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오히려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M**

배우 정수영씨가 만난 캄보디아 아이들의 이야기는 지난 12월 10일 오전 12시 55분, MBC <제249회 나누면 행복>을 통해 방영되었습니다. 해외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나눔을 통해 희망을 전해주세요.

정기후원 1899-4774
소액정기후원 <http://nanuda.org>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Magazine In Education

MIE는 Magazine In Education의 약자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잡지 활용 교육'을 의미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아래의 퀴즈들을 함께 풀어보며 캄보디아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성 홍보팀 김미란

1. 자녀와 함께 아래의 퀴즈를 풀어보세요.



	1)	1)		
2)		2)		
3)	3)			
		4)		
	4)		5)	



가로

- 1) 캄보디아 특산물로써 농장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누에를 통해 실을 뽑아내 이것을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 2)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강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 칭하이 성에서 발원하여 원안 성과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을 거쳐 남중국해로 흐른다.
- 3)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문화의 대표적 유적으로 앙코르톰의 남쪽 약 1.5km에 있으며, 12세기 초에 건립되었다.
- 4) 물건을 옮길 때 쓰이는 2륜의 운반차로 손수레라고 부르기도 한다.

세로

- 1) 캄보디아 공식언어
- 2) 오리과의 조류로써 천연기념물 제327호로 지정되어 있다. 금슬 좋은 부부를 상징하기도 한다.
- 3) 육지에 사는 동물 중 몸집이 가장 크며 긴 코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먹이를 먹는 동물이다.
- 4) 생각, 느낌 따위를 나타내거나 전달하는 데에 쓰는 음성, 문자 따위의 수단. 영어로 language.
- 5) 강황(薑黃), 생강, 후추, 마늘 따위를 섞어 만든 맵고 향기로운 노란 향신료.

모든 퀴즈를 풀었다면, 사진을 찍은 후 카카오톡 친구검색에서 '밀알복지재단'을 검색한 후 사진을 보내주세요. (2월 28일 까지)
선착순 20명에게 텀블러와 발달장애 작가의 작품으로 만든 엽서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M**

[정답] 다음호 VOL. 52에....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는 장애인이 마음 놓고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서울 이곳저곳을 누비며
 지도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없는 매장, 편견 없이 장애인을 맞아주는 친절하
 가게,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이 있는 문화시설
 을 찾아 지도에 표시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문밖을
 나서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안심하고 찾아갈만한 곳
 들을 미리 알려드린다면 조금이나마 즐거운 외출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특별한 지도 그리기 프로젝트 혜화역 주변

글 홍보팀 장혜영
 사진 홍보팀 장혜영,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

활동
 특별한 지도그리기 서포터즈 이효정, 이다인, 이수연, 최미서
 경희대학교 시민교육 참여학생 권수민, 권수빈, 노형승, 서정우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더 흥미롭게 하는 것’, ‘연극은 시대의 정신적 희망이다’ 혜화역 마로니에 공원 곳곳에 적힌 문구다. 혜화역 주변은 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의 거리다. 이곳은 예로부터 성균관 유생들이 풍류와 여가를 즐기던 거리로써 반촌 길이라 불렸고, 1975년 서울대학교가 이전하면서 과거 대학 부지에 마로니에 공원을 조성하고 ‘대학로’라 이름 지었다. 2011년에는 인도의 시인 타고르의 흉상을 혜화역 거리에 세우기도 했는데, 시인 타고르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흉상을 대학로에 설치한 것은 이곳이 문화예술의 중심지라는 것을 반증한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이자 일제시대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표현해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라빈드르나트 타고르 시인의 흉상을 비롯하여 독립운동가 김상옥 열사의 동상, 인권운동가이자 교육자인 함석헌 선생의 ‘그 사람을 가졌는가’ 시비 등 혜화역 주변은 작품들로 가득하다. 장애인에게도 이곳은 예술처럼 흥미롭고 아름다운 곳일까? 혜화역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대학로의 시작, 혜화역에서

혜화역은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4호선 전철역으로 총 4개의 출구를 가지고 있다. ‘대학로’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 주변에는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한성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대학교가 많아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주변에는 마로니에 공원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극단들과 극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 2번 출구와 3번 출구에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통해 밖으로 이동이 가능했다. 장애인화장실은 2번과 3번 출구로

나가기 전, 역의 중앙에 1개 위치해있었고 남자·여자 화장실로 분리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했다.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면 대학로의 입구에 위치한 샘터 파랑새 극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마로니에 공원을 가까웠다. 그리고 3번 출구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에 바로 이동할 수 있었고, 도보 20분 거리에 창경궁이 있었다.

구석구석 살펴본 예술의 면모

2번 출구 샘터 건물에 위치한 ‘샘터 파랑새 극장’은 대학로 최초의 민간 소극장으로 1984년에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인형극, 동요콘서트를 비롯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과 연극, 라이브콘서트 등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266만명 이상의 관객이 찾아왔다고 한다. 빨간 벽돌 건물을 뒤덮은 담쟁이덩굴로 이목을 끄는 샘터 건물은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까지 갖추고 있어 편리함을 더했다. 그리고 이웃에 위치한 마로니에 공원은 마로니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마로니에 공원’이라 불리게 된 만큼, 유럽에서 가로수로 많이 사용되는 커다란 마로니에 나무들이 우거진 넓은 공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바닥도 평평하고 깔끔했고, 야외 공연장마다 계단 옆에 경사로를 설치해 놓아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다.

다만, 대학로 공연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극장들은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았고, 매표소 또한 대부분 턱 위에 있어 이용이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휠체어 지정석을 가지고 있는 큰 규모의 공연장들이 생겨 이제 대학로는 장애인에게도 열린 문화공간이 되었다. 대명문화공장은 건물 내에 주차장이

01 02

03 04 05

- 01. 혜화역 대rob면에 위치한 인도 시인 타고르의 흉상
- 02.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해 접근이 편리한 샘터 파랑새 극장
- 03.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대학로예술극장
- 04. 장애인화장실이 있지만 입구에 전신거울이 있어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 05. 입구가 계단이고 지하에 위치해 있어 접근이 어려운 소극장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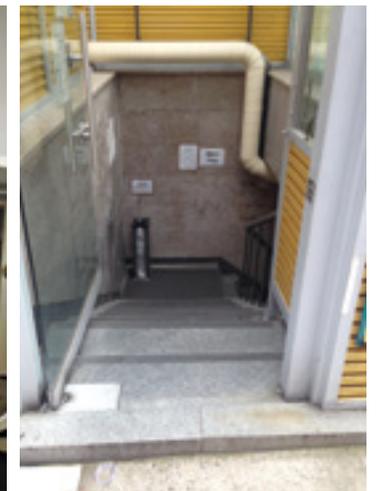


있었고, 장애인주차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와 장애인화장실이 있었고, 공연장 입구 근처에 휠체어 지정석이 있어서 휠체어에 앉아 관람이 가능했다. 대학로예술극장 역시 건물 뒤에 주차장이 붙어있었고, 장애인주차공간이 있었다. 1층과 공연장이 있는 3층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고, 3층의 대극장에서 양측에 2대씩 총 4대의 휠체어 자리가 있었다. 그밖에도 2015년 11월에 개관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이름이 있었다. 이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가와 대중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가진 곳으로,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다. 전시실, 공연예술 연습 공간, 교육 공간, 커뮤니티 룸, 소규모 공연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있었고 지하1층에서 5층

까지 층마다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다. 휠체어 충전기도 마련되어 있었고, 위치도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와 가까워서 꼭 추천하고 싶다.

대학로에는 CGV영화관도 있었는데, 경사로가 있어 진입이 가능했다. 엘리베이터가 내부에 있어 극장 내 이동은 편리했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과 휠체어좌석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장애인화장실 역시 남·여 따로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실 상태도 청결해 만족스러웠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각 층마다 화장실이 있었지만 장애인화장실은 4층에만 있다는 점이였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하려는 마음이 더해진다면, 혜화역



김영민씨가 후원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방법

글, 사진 흥보팀 오슬길

직원으로서,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물류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물류팀은 기증받은 물품을 재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인데요. 나눔을 통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볼 수 있지요. 기증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물건을 구입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급여를 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4년여 전, 당시 다니던 교회를 통해 굿윌스토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김영민씨는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저는 전공도, 이전에 다니던 직장도 사회복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였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죠.”

후원자로서,

김영민 후원자는 적극적으로 회원활동을 펼치고 있는 후원자 중 하나다. 지난해 8월엔 해외방문자프로그램인 ‘Let's go together’에 참여해 네팔로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고,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으로 활동하며 밀알복지재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후원금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기 때문이다.

“직원으로서도, 그리고 후원자로서도 전체적으로 밀알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업무들이 익숙하고 반복되다보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동기를 부여하고자 ‘어울림’ 활동을 신청했죠. 그리고 후원자로서는 제 후원이 어떤 일에 기여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후원자이기도 하지만 밀알의 직원이기에 ‘어울림’ 활동이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직원이기 때문에 행정비의 사용이라던지, 운영상 어려운 점들이 공감도 갖고, 후원자로서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되기도 했어요. 또 어울림 모임을 통해 다양한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인지,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는 지 훈훈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김영민씨는 주변에 후원자가 있다면 본인이 하고 있는 후원분야나 후원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많아지기 때문에 회원모니터링단 활동을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

작년 이맘때 즈음, 김영민 후원자는 고민이 있었다고 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김해영 본부장님

토크쇼에 갔었어요. 김해영 본부장님은 살면서 많은 것들을 성취해내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토크쇼에 가기 전 까지만 해도 김해영 본부장님의 그 많은 성취들이 목표를 두고 노력해서 이뤄낸 것들이 아닐까 생각했었어요.” - 김해영 희망사업본부장은 유년시절 겪었던 학대와 폭력, 척추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프리카 케냐에서 국제사회복지사로서 활발히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이다. - 필자주 “그런데, 본부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하는데, 본인은 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물론, 삶에 나아갈 바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김영민씨는 고민이 많았다고 했지만, 그는 이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4년여 전, 봉사활동을 성실히 하는 모습에 굿윌스토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을 것이고, 회원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역시 자신이 해당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해가 밝았다. 한 해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세우는 시기. 새로운 것도 있고, 몇 년째 그대로인 목표도 있고, 이룰 수 있을까 싶은 대안한 것들도 있다. 이번 새해엔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자는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떨까. 새롭거나 거창하진 않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감사를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일도, 결국엔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 것이기에... M



01

02

01. 2015년 네팔 봉사활동 당시
02. 회원모니터링단 활동사진

행복한 동행
그이상의 아름다움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사회공헌, NH투자증권

글, 사진 홍보팀 권태윤 사진제공 NH투자증권

우리는 조금은 냉랭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따뜻한 세상, 밝은 세상을 위해 애쓰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다.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든든하다. 이번 호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 NH투자증권을 만났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사회공헌단 이승미 대리입니다.

밀알복지재단과는 어떤 파트너십을 맺고 있나요?

회사 내 임직원 기부프로그램인 천사펀드를 통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결식아동돕기 후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34명의 아동들과 결연하여 매월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 KIT 300 세트를 만들어 복지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밀알복지재단의 홍보대사인 배우 박시은씨와 함께하는 '나눔스케치 토크콘서트'를 통해 임직원들이 나눔 공유의 자리를 갖고 나눔 활동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사회공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본적으로 NH투자증권의 모든 임직원들이 하나의 봉사단체에는 반드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처음 참여하기까지가 어렵지 그 안에서 느끼는 보람이 생각보다 크다는 걸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조금이라도 후원금을 모아 필요한 물품이나 지원금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 NH농협금융에서 시상하고 있는 사회공헌상에서 우수단체상을 수상하는 등 모든 임직원들이 진심을 다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보람은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부분이 가장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의

옥상텃밭 지원사업을 진행했었어요. 지적장애인과 임직원들이 함께 복지관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고 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인데, 처음엔 모두가 서먹해서 어떻게 시작하고 가까워져야할지 모를 정도로 어색해 했었죠. 차츰 서로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작물 재배도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진행되어서 직접 기른 무로 깍두기를 담그는 행사까지 진행했었어요. 그렇게 함께 만든 깍두기를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의 가정으로 전달된 일이 기억에 남네요. 옥상텃밭 지원사업은 지적장애인과 임직원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을 주고, 작물재배를 통해 즐거움과 힐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기획의도였어요. 그 의도에 맞게 너무 잘 진행되었죠. 저희가 돕고자 했던 지적장애인과 함께 또 다른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진 게 보람된 것 같아요.

사회공헌에서 개인적으로 믿고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면?

저희 회사의 모토(Motto)와도 같아요. '밝은 세상 우리가 함께'라는 사회공헌활동의 슬로건처럼 지금까지 모든 활동들을 기획하면서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실질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주 복지단체 등에서 배식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고, 월 2회 보육원을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어요. 또,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적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단체 그리고 매월 마지막 토, 일요일 이틀간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단체까지 모두가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가는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찾아 주어서 대상자들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특히나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저희 사내봉사단 활동에 대해 꼭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NH투자증권의 기업사회공헌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요?

농협의 나눔경영을 이어받아 전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눔의 의미를 새기고자 해요. '고객과 임직원이 금융을 통해 더불어 나누고 행복을 채운다.'는 기본 철학과 '같이의 가치'를 깊이 새기고 실천함으로써 고객과 농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행복한 동행을 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세상, 우리가 함께

친근한 이웃이자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어려운 환경으로 힘들어 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행복을 전하여 함께 살아가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NH투자증권의 비전과 닿아 있을 것이다. 세상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소중한 이웃이 되어 세상을 밝혀 나가길 응원하고 기대합니다. M

01	02	03
04	05	

- 01. 장애인들과 함께 재배한 배추
- 02. 옥상텃밭 지원사업
- 03. 함께 재배한 무
- 04. 추석맞이 선물KIT 만들기
- 05.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나눔



함께하는 마음



“ 지유를 ” 마음껏 안아보고 싶어요.

글, 사진 지원사업팀 박혜은

지유(가명, 여아 1세) 엄마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한국에 유학을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유 아빠를 만나 지유를 가지게 되었고, 몽골로 돌아가 지유를 낳고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중 검사에서 지유에게 탈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라는 말을 믿고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석사과정이 끝난 지유 엄마는 더 이상 학생비자를 발급 받을 수 없어서 의료관광비자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1,000만 원의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지유는 4번의 수술을 받았고, 오랜기간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유네 가족에게는 엄청난 금액의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퇴원할 때에도 각서를 쓰고 나온 지유네 가족은 하루하루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유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에 대한 즐거움 대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음식을 식도로 넘기지 못해 구토를 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지유는 음식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데 음식에 대한 거부반응이 나타나는 지유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위루관 수술 밖에 없었습니다.

“출산 전까지 병원에서 일을 했어요. 제가 한국말이 가능해서 몽골 환자들에게 안내하는 일을 했어요. 만삭일 때도 힘들었지만 일을 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애가 아파서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데..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 입장은 다 같을 거예요. 사실 아이 몸에 칼을 대는 건데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수술을 통해서라도 먹을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에요.”

힘들게 돈을 모아 탈장과 출산 수술비를 마련해 수술을 하던 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지유 엄마를 힘들게 했습니다. 지유가 단순한 탈장이 아닌 “소장폐쇄증”*이었습니다.

이제 2살이 된 지유의 작은 몸에는 음식물과 영양분

- 01
- 02
- 03

01. 지쳐 잠든 지유
02. 지유와 엄마
03. 위루관 수술로 배에 차고 다니는 장치

*소장폐쇄증

선천적으로 짧은 장 길어로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막힌 부위와 사람마다 증상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쥐어짜는 것 같은 극심한 복통, 오심과 구토, 복부팽만 등을 호소한다. 또한 고형질의 장 내용물이 내려가지 못하고 수분만 내려가서 소량의 물 설사를 하거나 아예 대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흡수를 도와주는 갖가지 호스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호스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양분으로 살아가고, 식도로 연결된 호스를 묶어 두어 구토를 멈추고 음식을 섭취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유를 만나기 위해 방문 한 날, 집 안에서는 칭얼거리는 지유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번역력이 약한 지유가 감기에 걸려 입원치료 후에도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달 간 멈추었던 구토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 더 힘든 수술을 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엄마는 역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소장이 길이가 조금 짧은 지유는 소화 기능도 영양분 저장기능도 모두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유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에 한 팩의 영양제를 맞고, 영양이 압축 된 특수한 분유를 먹어야만 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면 뭐든 다 해주고 싶지만 비용이 걱정되는 엄마는 항상 자신을 자책합니다.

“지유에게 들어가는 영양제, 특수 분유, 주사기 등등 다 하면 한 달에 100만원이 훨씬 넘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저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에요” 서랍장 하나를 가득 채운 의료품들도 지유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엄마는 가끔 지유를 품에 안고 다니는 꿈을 꾸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 때처럼 다시 지유를 그렇게 안아주고 싶지만,

지유 엄마에게는 꿈 보다 더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유는 안아주면 더 칭얼거려요 아파서요. 다른 엄마들은 아이 안아주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도 많이 하던데.. 저는 정말 그렇게 힘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위루관 수술로 항상 배에 차고 다니는 주머니가 불편해 서인지 가장 좋아하는 엄마 품도, 기어 다니면 닿아지는 바닥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유를 안아주는 자세는 항상 어정쩡하고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유의 몸에 하나 둘 씩 늘어가는 호스와 주머니 없이 지유가 따뜻한 엄마 품에 편안히 안길 수 있도록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후원 신청 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 금 주 밀알복지재단

■ “기적을 품은 아이들”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 장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수술비 및 결연후원을 통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빠른 재활을 돕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대상

만 18세 미만 뇌병변, 뇌성마비, 희소 난치성 질환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비 (1,000만원 한도) • 치료비 (월 20만원)

여러분들의 후원금은 지유와 같은 장애아동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의료비지원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수술, 결연의료비로 사용됩니다.

사랑과 응원에 반드시 일어날게요!

글, 사진 지원사업팀 김래홍



밀알 43호에 소개되었던 석규의 사연이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난 뒤 석규네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석규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후원자들이 모아주신 후원금으로 살고 있던 집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월 정기적으로 나가던 10만원의 금액은 석규네 가족에게는 너무나 부담이 되던 금액이었는데, 전세로 전환하게 되어 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석규의 부모님은 요즘 든든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석규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희소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서서히 관절이 악화될 것이고, 관절의 변형이 생기면 결국 걷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던 석규 였지만, 이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 걷지 못했던 석규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20~30분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우려했던 관절의 변형도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재활훈련과 정기검진을 통해 악화를 막을 수 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요즘 석규는 언어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져 부모님 외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석규의 말을 이제는 학교 친구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석규가 수업 중에도 선생님의 말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대답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판단 능력도 좋아져서 상대방이 배려를 조금만 해준다면 전혀 어려움 없이 학교생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석규가 가지고 있는 희소난치성질환은 아직까지 신약이 개발되지 않아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석규와 가족들은 후원자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규의 병이 완치 되어 건강해지는 기적이 일어 나도록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후원자 여러분! 



법인사무처 소식

2016년 1~2월 밀알복지재단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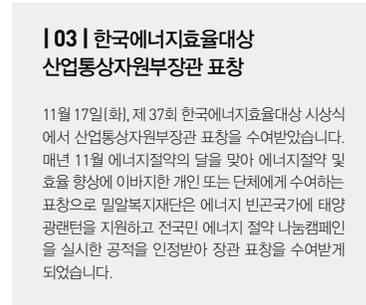
01 |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2015 음악콩쿠르 수상

11월 3일(화)부터 5일(목)까지 3일간 제8회 전국 장애 학생 음악콩쿠르가 대전방송(TJB) 공개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밀알첼로앙상블 날개 차치우 단원이 고등부 관악악부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밀알첼로앙상블 날개는 지난 9월 4일에 열린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주최 '제9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서양 악기부문 합주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02 | 제1회 밀알회원의 밤 'Thanks Giving Day' 진행

11월 6일(금), 첫 번째 밀알회원의 밤 'Thanks Giving Day'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연기획사 (주)악어 컴퍼니 (대표 조항덕)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후원 회원과 지인들을 함께 초대해 밀알복지재단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알아가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연극 '육탐방 고양이'를 관람하는 등 회원 간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03 |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11월 17일(화), 제 37회 한국에너지효율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습니다. 매년 11월 에너지절약의 달을 맞아 에너지절약 및 효율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표창으로 밀알복지재단은 에너지 빈곤국가에 태양 광랜턴을 지원하고 전국민 에너지 절약 나눔캠페인을 실시한 공적을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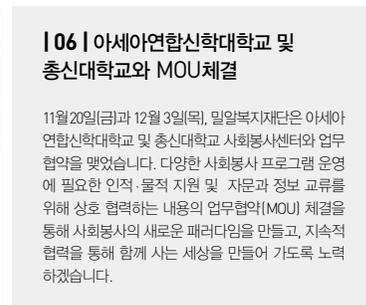
04 | 광기종 코트디부아르 매니저, 제1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11월 25일(수), 제1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밀알복지재단 광기종 코트디부아르 프로젝트 매니저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 활동 중인 광기종 프로젝트 매니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년 간 빈곤 아동들을 위해 보건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05 | 배우 정수영, 나눔을 위한 캄보디아 동행

배우 정수영씨와 함께 MBC '나누면 행복' 촬영을 위해 지난 11월 2일(수)부터 4박 5일간 캄보디아 프놈펜에 다녀왔습니다. 정수영씨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캄보디아 빈민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희망을 꿈꿀 수 있기를 희망하며 밀알복지 재단과 함께 하였습니다.



06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및 총신대학교와 MOU체결

11월 20일(금)과 12월 3일(목), 밀알복지재단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및 총신대학교 사회봉사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및 자문과 정보 교류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사회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산하시설 소식

2016년 1~2월 밀알복지재단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1

01 | 면일어린이집 면일의 30년, 새로운 시작

12월 8일(화), 면일어린이집은 개원 30주년 기념 행사를 가졌다. "면일의 30년,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우리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면일어린이집 학부모, 나진구 서울시 중랑구청장,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김기환 사무총장, 전국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협의회 류미희 회장, 서울시 중랑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남영수 회장 등 보육관계자 약 12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



02

02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특화사업 장려상 수상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부부 및 가족상담과 한부모 상담을 진행하였다. 매주 주·야간 상담 및 토요상담, 그리고 부부집단상담을 실시해 주말 부부와 직장인부부의 상담욕구도 충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총 57가정이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 및 가족 갈등 그리고 자녀양육의 고충 등을 가족상담사들과 나누었고, 그 중 76% 이상이 서로를 돌아보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관계회복의 기대감을 나타냈다.



03

03 | 부산지부 2015 개발협력 Week 행사 라이팅칠드런 캠페인 진행

11월 27일(금), 해운대 벅스코에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를 기념하는 '제5차 부산 ODA 포럼'에 참여하였다. 2015 개발협력 Week 행사에서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태양광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나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을 진행하며 재단의 사업을 홍보하였다.



04

04 | 우리플러스작업장 지역사회적응훈련 '희망 PLUS UP'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하는 '성인자폐성장애인 사회통합프로그램 스타트 업 씨씨'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1월 30일(월)부터 한 달간 6명의 이용자와 12회기에 걸쳐 지역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강화 및 사회성을 향상 시키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우리플러스작업장 이용자들이 지역사회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산하시설 소식



05



06



07



08



09



10



11



12



13

05 | 성남시장에인복합사업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상 수상

11월 4일(수), 장애인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도모를 위해 개최된 제7회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에 근로 장애인 이상순씨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상을 수상하였다.

08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015 성탄문화제 개최

12월 16일(수), 2015년 성탄문화제를 개최하였다.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및 우수이용자의 시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용자들의 축하공연과 일일카페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행복한 성탄절을 준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삼시세끼 강남편-청경궁 나들이 및 중간평가

12월 11일(금), 삼삼석유화학과 함께는 재가말반찬지원사업 10주년 기념 식 및 사랑의 건강간지 & 말반찬지원 나눔행사를 진행하였다. 매일 둘째 주 봉사단과 가족들이 직접 간지를 담궈서 여러 말반찬과 함께 포장해서 배달까지 하였다. 말반찬 지원사업은 현재까지 120회 15,600가구에 제공되고 있다.

06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2015년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감사 행사

12월 8일(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에게 한 해의 활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송년감사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자원봉사자 부문에서 국민연금 강남역지사, 노달리스 로성, 디스페이스, 서울메트로 수서승무사업소, 한국요가지도자중앙회, 한미글로벌 이단체성을 수상하였으며, 개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대표에게는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09 | 청마을어린이집 소방안전 운동 경연대회

12월 10일(목), 배웅 배웅-청마을 친구들이 '소방안전 운동 경연대회'에 참가 하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119 소방동요에 직접 율동을 만들어 어린 이들이 쉽게 배우고 화재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우리 청마을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2 |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제3회 온유한 가족송년회

12월 10일(목), 연말을 맞이하여 이용자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족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한 소개와 이용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시청, 시상 및 선물 증정, 직원들의 환상 등이 진행되었고, 참석 가족들에게 보람과 자긍심 그리고 우리 이용자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07 | 사회적기업 청밀 11월의 크리스마스 KIT나눔 행사

12월 5일(토), 경기도사회복지자사회 및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11월의 크리스마스' KIT나눔 행사를 진행하였다. 경기도 내 저소득가정 아동과 청소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방한 물품 11종을 선물꾸러미로 제작하여 5,000세대에 전달하였다.

10 | 밀알보호작업장 사회적응훈련, 체험마을 방문

12월 4일(금), 영평에 위치한 체험마을에 다녀왔다. 눈이 쌓인 산과 남한강의 절경 등을 감상하고, 따뜻한 읍집 속에서 맛있는 음식들, 특히 직접 만든 시루떡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명주실 붓기 등 다양한 체험 등도 하고 왔다. 추운 날씨였지만 모두가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13 | 서초구립중앙노인복지관 더 하모니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 개최

11월 19일(목), 더 하모니 합창단 제4회 정기연주회가 서초구내 저소득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힐스테이트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연주회는 어르신 32명과 학생 17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름다운 1세대와 3세대의 합창 외에도 오케라니, 베토벤 예술인형회의 다양한 찬조공연이 진행되었다.



산하시설 소식



14



15



16



17



18



19



20



21



22

14 | 중림어린이집 테마파크 소풍

11월 6일(금), 잠실에 위치한 '보로로 테마파크'에 중림어린이집 친구들이 다녀왔다. 놀이기구 타기 및 신나는 공연을 관람하고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먹으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왔다.

17 |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서울시 재가노인지원센터 연합 워크숍

12월 2일(목)-4일(금), 1박 2일의 일정으로 파주에 위치한 흥천연수원에서 '출중한 재가노인지원센터' 전달체계 발전방향을 위한이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 25개구 28개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시설장과 실무자들의 토론과 화합의 장이 열렸다. 정경화소장의 3명의 사회자들이 참석해 일종의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20 | 해마유주간보호센터 12월 지역사회적응훈련

12월 1일(화),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영화관을 방문하여 관람하였다. 직접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버스 탑승하기 등 평소 혼자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15 | 밀알베이커리 여가동아리 활동-영화 관람

여가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11월 2일(토)에 송파가든파리브 CG에서 영화 '허거 게임'을 관람하였다. 영화 관람에 앞서 예성교육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모두가 상쾌한 모습을 보였고, 즐겁게 영화를 관람 하였다. 영화 관람 후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편안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8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Drawing Love'의 작품전시회

11월 19(목), 대청역에서 어르신 사진재능나눔봉사단 '자니카 메라포커스'와 여성장애인 재능나눔동아리 'Drawing Love'의 작품전시회가 열렸다. 8개월 간의 노력이 담긴 사진과 캘리그라피 작품 50점을 전시해 많은 사람들이 관람 하였다.

21 |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2015년 작품전시회 및 하반기 가족간담회

12월 11일(금), 한 해 동안 이용어르신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고 가족들을 초대해 2015년 작품전시회 및 하반기 가족간담회를 진행 하였다. 평소 어르신들이 즐겨하시는 음악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노래 부르며 참여하는 등 서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6 |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11월 10일(목)과 12일(토) 이틀간 2회기에 걸쳐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총 24명의 부모님이 참여하여 평소 어려워하던 자녀의 언어 교육에 대한 질의응답을 비롯하여 언어발달과 이중언어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9 | 안산밀알센터 통학차량 구입을 위한 일일차집

11월 14일(토), 안산밀알센터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및 활동지원에 사용될 통학차량(34인승) 구입을 위한 일일 차집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안산 밀알후원회(사회(재)엔씨컴퍼니)에서 1천만원을 후원해 주시는 등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의 실천을 함께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22 | 밀알주간-단기보호센터 가족송년 파티 - 당신이 축복입니다!

12월 18일(금), 밀알학교 성산홀에서 가족송년파티를 실시하였다. 가족사진 촬영과 2015년 동영상 시청, 다함께 식사하기, 가족작품 만들기, 선물교환, 시상식, 환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기부 어때요? 내 아이를 위한 아름답고 예쁜 나눔

“내 아이가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아기스타(아름다운 기부 스타트)’ 캠페인을 통해 기부에 참여한 예비엄마 엄지희(35)씨는 나눔 활동 참여 동기에 대해 이와 같이 밝히며 엄마의 아름다운 마음이 태아에게 전달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보험도 가입하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눔’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보험인나눔실천본부](http://bonabon.miral.org/)(<http://bonabon.miral.org/>)와 함께 ‘엔젤플래너 캠페인’을 통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보험인나눔실천본부의 ‘엔젤플래너 캠페인’은 수익의 일부가 설계사의 이름으로 기부되었던 것과 달리 캠페인을 통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본인의 이름으로 밀알복지재단에 기부돼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공익연계 캠페인입니다.

보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기부에 동참하게 된 고객들은 “좋은 일에 앞장서는 담당설계사의 모습에 더욱 신뢰를 갖게 되었고, 기부에 대한 관심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밀알복지재단과 보험인나눔실천본부는 지난 6월에 가진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인 연계방법을 논의하며 사회공헌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엔젤플래너 캠페인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 070-4239-9114
보험인나눔실천본부



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해주세요!

2015년 한 해도 함께해주신 회원님의 관심과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용과 방법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놓치지 마세요!

꼭 확인해주세요!



우편발송

매년 1월 제공해드린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서비스가 2016년 1월부터 종료**됩니다.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해 더 많은 소외된 이웃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기부금 영수증은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등록되어야만 발급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① 홈페이지 www.miral.org → 나의후원내역 → 기본정보 조회 / 변경 → 기부금영수증
- ② 회원전화번호 1600-0966

온라인 발급방법

2016년 1월 중순부터 조회 및 출력 가능



방법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



방법2 밀알복지재단 홈페이지
www.miral.org → 나의후원공간 → 나의후원내역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출력

※ 우편발송을 원하시는 경우 **회원전화번호 1600-0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로로 납부하시는 경우 2015년 12월 28일까지 납부된 후원금에 한하여 올해 후원금으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잃어버린 밤 시간을 비춰주는

태양광랜턴 - 솔라미

휴대폰? No! 태양광랜턴? Yes!

태양광랜턴 솔라미는 후원자가 직접 조립하는 조립식 태양광랜턴입니다. 휴대폰이나 보조배터리라고 생각할 만큼 작고 가볍습니다. 태양광 아래서 5시간 이상 충전하면 최대 10시간 동안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솔라미는 낮에는 일을 하느라 학교에 갈 수 없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밤시간에 책을 볼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완성품의 무게는 겨우 136g으로 초경량을 자랑합니다. 조립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며 초등학교생이 조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립방법이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밤 시간을 되찾아주는 태양광랜턴

완성된 태양광랜턴을 밀알복지재단으로 보내주시면, 각국에 있는 밀알복지재단 해외 사업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밤에는 빛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이들의 잃어버린 밤 시간은 태양광랜턴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랜턴을 받은 아이들은 밤시간 책을 읽으며 더 나은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됩니다. 13~15년 3년 동안 15개국에 2만 9천 개의 랜턴이 보급되었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잃어버린 밤 시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태양광랜턴 보내기에 참여해 주세요.



태양광랜턴 보내기에 참여 방법

검색창에 '라이팅칠드런'을 검색 하거나 QR코드로 접속 하시면 라이팅칠드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태양광랜턴 키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완성된 랜턴을 밀알복지재단으로 보내주시면 아프리카에 전달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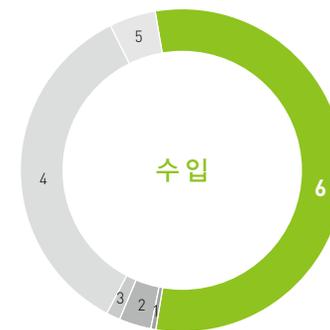
태양광랜턴 조립 참여 바로가기 QR코드

[단체 참여 문의] 070-7462-9056 황슬기 간사

※ 50인 이상의 기업 및 단체 참여시 찾아가는 나눔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금액
보조금	위탁시설운영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	37,790
후원금	국내(장애아동, 독거노인, 저소득가정) 후원, 해외(보건의료, 지역개발, 아동교육) 후원, 긴급구호후원, 공모사업후원, 법인운영후원 수입 등	3,980,984
전입금	수익사업 전입금	330,000
사업수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태양광랜턴사업 수입 등	229,103
잡수입 외	예금이자, 잡수입, 기타	100,521
전월사업이월금	사업이월금	2,524,153
합 계		7,202,551

구분	내용	금액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재단운영관리비	257,944
국내사업	국내아동결연 및 보육, 장애인의료 및 교육지원, 저소득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인식개선사업	2,516,328
해외사업	해외아동결연, 해외아동교육, 긴급구호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21개국 지원	656,666
자원개발사업	미디어, 온라인, CSR협력, 회원서비스사업	429,307
홍보사업	언론, 출판,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관리사업	71,783
경영기획사업	교육연구, 조직강화, 기획사업, 전산개발	56,996
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02
재산조성비	기본재산취득, 임차보증금, 시설장비유지	256,444
상환금	부채 상환금*	248,143
잡지출 외	잡지출, 전월 미지급금, 선급비용	50,976
차월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2,455,562
합 계		7,202,551

*부채 상환금은 법인운영으로 지정한 후원금으로만 사용됩니다.



깨끗한 자연을 담다

자연愛:

글라스락은 자연에서 왔습니다.
 청정 해변의 고운 모래를 비롯한 친자연 소재로 만들어진 깨끗한 유리가 세상을 맑게 한 뒤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을 담은 그릇,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호르몬 걱정 없는 글라스락으로
 소중한 우리 가족에게 건강한 테이블을 선물하세요.
 깨끗한 생활, 자연이 가득한 삶이 시작됩니다.



www.glasslock.co.kr
 www.facebook.com/glasslockkr

[국내 사업장]

법인사무처	02-3411-4664
경기지부	031-235-4667
경남지부	1600-0966
대전·충청지부	1600-0966
부산지부	051-853-4665
인천지부	1600-0966
전남지부	1600-0966
전북지부	1600-0966

[장애인복지사업]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밀알그림출 등행의 집	055-753-1456
밀알그림출 나눔의 집	02-3401-1084
밀알그림출 섬김의 집	02-449-3478
밀알달기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주간보호센터	02-3414-0314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02-3411-7942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밀알학교	02-3412-1133

성남시장애인복지사업장	031-777-9041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안산아름드리그림출	031-414-3171
옥수그림출	031-705-3398
한우리주간보호센터	02-2184-8761
해마을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노인복지사업]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도봉실버센터	02-955-6080
도봉실버데이케어센터	02-955-6080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서초구립중노년종합복지관	02-3474-6080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지역복지사업]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02-3412-2222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아동보육사업]

면얼어린이집	02-495-4604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어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청마을어린이집	02-459-6335

[문화, 일자리 사업]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사회적기업 청밀	02-459-8860

[해외사업장]

기니비사우	+245-574-6516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네팔	+977-1-431-5485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레바논	+961-7049-1615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말라위	+265-992-129-931
미얀마	+959-25-091-2234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베트남	+84-903-391-568
시에라리온	+232-76-606074
우간다	+256-776-771-324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이스라엘	+972-52-547-1422
캄보디아	+855-12-783-193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케냐	+254-732-625-987
탄자니아	+255-754-344-495
태국	+66-86-191-6122
필리핀	+63-922-739-7017

후원 전용 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외환은행
630-009630-877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회원 전용 번호
1600-0966

www.miral.org
밀알복지재단